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의 활용



Usability of Digital Encyclopedia of Korean Local Culture(www.grandculture.net) for local identity



윤유석, Yuseok Yun



요약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은 전국 234개 시군구의 향토문화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웹기반의 지식정보시스템이다. 백과사전적 성격과 향토지, 시군지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 향문전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향토문화지식정보와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디지털전자백과사전인 향문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담아내고 서비스 하고 있는가? 본 글은 순환형 시스템에 기반한 향토지식 문화콘텐츠의 서비스 현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Abstract “Encyclopedia of Korea Local Culture(www.grandculture.net)” is a digital encyclopedia system for local culture. It contains a local history, culture, geography and who is who. HCI wants computer to help a human life. Then what is useful information for human and human culture? Maybe a knowing of own local culture makes one more happy, because it will help to understand oneself. This article will show how this encyclopedia manages the cultural resources of local.



핵심어: *encyclopedia, korea local culture, local culture-contents*



1. HCI로서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의미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지형, 문화유산, 인물, 물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직장과 학교, 결혼으로 타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 허홍범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타지로의 이동이 지역민의 정주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자신과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를 알아야한다는 것이다.(허홍범, 2003) 이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읽’은 문화산업을 위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에 앞서 거주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읽’을 위한 자원이자 지식정보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 기반의 디지털향토문화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은

컴퓨터를 통한 향토문화정보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HCI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인터페이스나 메뉴구성, 디자인 요소에 대한 상호작용이 아니라 향토문화 지식정보와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정보 요소와 항목, 그리고 구조이다. 기존의 백과사전이 문자와 이미지를 선형(리니어)구조로 제시하였다며 향토문화전자대전(이하 향문전)은 문자와 이미지를 포함해 음성,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의 하나로 간주하고 하이퍼링크를 통한 비선형(넌리니어) 구조로 제공하고 있다.(강진갑, 2007)

필자는 이러한 향문전의 정보요소를 자아정체성과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간주하고 향토문화정보가 인간으로서의 한 개인과 지역민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고 이후에 향문전 지식정보의 요소와 활용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향토문화전자대전의 특징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하 향문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향토대전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향토문화 전자백과사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200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성남, 청주, 강릉, 진도, 진주 문화대전이 서비스 중이며 남원, 제주, 양산, 용인, 음성시가 문화대전 편찬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향문전은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유무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21세기형 향토문화 전자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향문전은 기본적으로 “사전” 형식의 독립적인 항목으로 집필되어 지역 향토문화백과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향토지에 뿌리를 둔 시군지의 내용적 특성을 따르고 있다.

백과사전과 향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음을 의미한다. 즉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입증된 지식의 내용과 형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특징을 먼저 살펴본 후에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간과 정보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향토문화 백과사전으로서의 특징

백과사전(encyclopedia)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enkloi(circle)〉와 paideia(of learning)에서 유래된 것으로 초기에는 학습의 순환을 의미했다. 그리스인들이 고등교육의 기본으로 생각했던 예술과 과학의 전문분야에 걸친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교육이념은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유래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로마인의 태도가 백과사전적 저술의 시원을 이루었다(강혜영, 1986).

근대 백과사전의 기반을 확립한 디드로(Diderot)는 그의 〈Encyclopedia〉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배열한 거대한 보고’라고 보았고, 기조(Guizot)는 ‘인간의 정신에 관한 모든 저작의 결과가 누구나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멈추는 사람에게 제시되는 거대한 지식시장’이라고 보았다(강혜영, 1986). 하지만 그것이 잡다한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백과사전은 잡다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명료하고 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웰스(H.G. Wells)의 말처럼 백과사전은 명료한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04년 영국의 과학자 John Harris가 출판한 『예술과학사전(An Universal English Dictionary of Art and Sciences)』이 좋은 예인데, 영국의 자국어백과사전의 효시이자 근대 백과사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 백과사전은 기존 백과사전의 기본 항목이었던 신학, 전기(傳記), 지리학 등을 누락시키고 예술과 과학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통합된 지식의 체계화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은 1770년 홍봉한의 『증보문헌비고』를 시작으로 성암의 『태평통의』, 이수광의 『지봉유설』, 최명길, 어숙권의 『고사촬요』, 이익의 『성호사설』, 등의 다양한 백과사전류가 편찬되었다. 그러나 신식출판개하기, 일제출판탄압기, 미군정출판간섭기 등에는 이렇다할 백과사전이 나오지 않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학원사의 『세계백과대사전』, 동아출판사의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현 한중연)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서문화사의 『한국세계대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이 출판되었다(오경호, 1995).

이 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하 민백)이 ‘문화’를 주제로 한중연이 출판한 백과사전이다. 민백은 한국의 역사, 자연, 생활, 사회 문화에 집중하여 각 분야 전문가 7,000명이 집필하였고 현재는 엠파스 백과사전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는(<http://100.empas.com/minbaek/index.html>) 문화에 집중한 백과사전의 한 예이다.

향문전과 민백의 차이는 중앙적 시각이 아닌 지방적 시각에서 편찬사업 진행하고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살린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적 “정보, 기록, 자료”를 구축하고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다.

집필에 있어서도 민백이 전문 집필자들에 의해 편찬이 완료되었다면 향문전은 현재 진행형의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촉된 집필자 외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해 기사를 수정, 보충하거나 자신이 직접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식이 확장되는 시스템을 향문전에서는 개방형, 순환형 시스템이라 부른다. 향문전이 CD롬 형태의 디지털 백과사전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개방형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향문전을 매개로 지역민들이 지식을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식의 공유와 교류가 지역민의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지방지, 시군지로서의 성격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향토지를 제작해 왔다. 향토지는 지리지(地理誌), 지지(地誌)와 같은 것으로 부사(府史), 시

사(市史), 도사(道史), 지방(地方史)로 불리고 편찬 구역에 따라 동지, 읍지, 군지, 시지, 면지, 편찬 주체에 따라 관찬지, 사찬지로 불린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의 향토지의 선구적인 형태이다. 이후 조선왕조 초기에는 지역통치의 수단으로 지리지 형태의 향토지 편찬이 본격화 되어 지역의 인구, 토지, 군수, 풍속 등 지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실을 기록하여 인문지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때는 행정구역을 부(府)로 정비하면서 『경성부사』, 『인천부사』, 『대구부사』, 『전주부사』 등의 부사(府史)가 주를 이루게 된다. 부사를 통해 일본인들은 식민지로 진출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인구현황, 지리, 관제, 행정, 교통, 통신, 향만, 금융, 산업, 무역, 상수도, 위생시설, 언론 등의 지역정보를 정리하는데 이를 통해 금융, 무역 등의 항목이 추가돼 근대화된 계기를 맞게 되지만 편찬의 목적은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료수집이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향문전이 편찬된 이유는 18세기 후반 이후 맥이 끊겼던 민족문화 집대성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급속히 소멸해 가는 향토문화자료의 보존 계승해 지역이 주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문화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목적은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민족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주체적인 지역문화를 집대성하기 위한 것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자원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한승환은 세계화시대의 자아정체성은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 지역정체성이 병립하는 복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인간은 한 국가의 국민이면서, 세계시민이며, 동시에 지역주민으로서의 3중적인 시민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한승환, 2001), 향문전을 통한 지역문화의 집대성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면 그 정체성의 형성과 인식은 지역민 개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향문전은 이들 개인의 지적 요구와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2.3 웹 기반의 전자백과사전으로서의 특징

향문전은 지역 문화정보의 변화성을 고려하여 개정, 증보가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 구조와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특히 웹 기반으로 만들어져 인터넷 환경과 기술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옥선이 정리한 향문전의 특징으로는 첫째, 편찬과정의 자동화이다. 항목개발, 원고집필, 집필승인, 교열감수, 태깅, 최종 검수 등의 과정이 모두 온라인 편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고 집필은 템플릿으로 작성이 되고 작성된 원고는 XML 형식의 전자문서로 자동 변환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둘째, 다양한 콘텐츠 접근경로이

다. 향문전의 콘텐츠는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는 통합검색 외에도 콘텐츠 목차를 통한 검색,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 색인어 검색, 전자지도, 전자연표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과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하이퍼텍스트 기법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이미 익숙한 정보구성 형태로, 내용을 읽으면서 링크로 연결된 관련된 다른 항목이나 정보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있다. 아직은 연결 상태가 미흡하지만 전자지도와 전자연표를 통해서도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계획이다. 넷째, 이용자 참여 기능이다. 향문전은 사용자가 단순히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필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순환형지식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초자료, 단편적 정보, 고급 정보가 한 시스템 내에서 순환하면서 새로운 지식 정보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향토문화전자대전의 구성

향문전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문화자원의 개념에서 정리하고 있다. 향토문화는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사회를 이루고 역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형성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이자 그 지방의 자연환경 속에서 전승되어 오는 역사, 전통, 생활, 전승, 예술, 유적 등의 모든 문화유산과 현대의 모습을 포함한다(이옥선, 2008).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향문전의 특징은 '함께 만들어가는 향토문화지식' 을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에 유용한 틀로 기능할 수 있다. 확정되고 단절된 지식이 아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정체성의 형성이 지리적으로 그 현장에 있고 없음에 국한되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도 지역적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컴퓨터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지적인식의 차원에서 지역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고 있는 셈이다.

3.1 지역의 향토문화자원 항목

지역의 전통과 역사유산은 단순히 왕정복고나 민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톨먼은 역사인류학의 관점에서 전통과 근대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에게 있어 전통은 역동적이고 열려진 삶을 살기 위한 행위의 테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전통은 과거의 상태로 고착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집단에 따라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가지고 변화하게 된다(톨먼, 2001). 다시 말해, 전통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들을 스스로 제기하고 새로운 의미관계를 창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대적인 범주일 따름이

다. 따라서 향토문화는 그것의 현재적 가치, 즉 과거의 생활 양식과 경험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유익과 가치를 줄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유익과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향토문화자원은 지역민의 생활상과 의식이 반영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으로, 역사, 생활, 예술, 관광,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구분 | 내용 |
|-----------|---|
| 역사문화자원 | 역사적 사건과 현장/ 내 고장의 역사적 인물/ 내 고장의 문화유산 |
| 생활문화자원 | 전통생활민속 / 구전설화 / 주민의 종교생활 / 주민의 생활권역 / 지역의 별미음식 / 지역의 토산품과 특산물 |
| 예술문화자원 | 지역문화예술행사 / 지역문화예술단체 / 지역연륜기관 / 문화예술교육·연구기관 / 지역문화예술 시상제도 / 지역연고 예술인 / 지역소재 예술작품 |
| 관광·여가문화자원 | 관광자원 / 관광시설 / 관광코스 / 관광쇼핑 / 여가시설 |
| 문화시설자원 | 박물관 / 미술관 / 도서관 / 공연장 / 전수회관 / 문화의 집 / 문화원 |

표 1) 향토문화자원의 예

3.2 향토문화자원의 향토문화자원 분류

향문전은 향토문화자원을 백과사전 항목으로 분류하기 위해 한국향토문화표준분류체계(AKS안)를 제시하고 있다. AKS의 기본 구조는 9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① 삶의 터전(자연과 지리), ② 삶의 내력(역사), ③ 삶의 자취(문화유산), ④ 삶의 주체(성씨와 인물), ⑤ 삶의 틀 1(정치와 사회), ⑥ 삶의 틀 2(경제와 과학), ⑦ 삶의 내용(종교와 문화예술), ⑧ 삶의 방식(생활과 민속) ⑨ 삶의 이야기(구비전승과 어문학). 9개의 대분류는 중·소 분류를 통해 각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에 대한 세부목록으로 세분화 된다(권영욱, 김백희, 2007).

디렉토리 분류에서는 분야와 유형, 시대, 지역별로 항목을 분류하였다.

- 분야별 분류

자연지리/역사/문화유산/성씨인물/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교육/생활민속/구비전승어문학

- 유형별 분류

개념용어/기관단체/놀이/동물/문헌/물품도구/사진/성씨/식물/유물/유적/음식물/의례/의복/인물/작품/제도/지명/행사

- 시대별 분류

선사/고대/고려/조선/일제강점기/현대

- 지역별 분류

시/읍/면

4. 향토문화전자대전의 영상콘텐츠

디지털매체의 등장은 정보유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멀티미디어콘텐츠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영상을 정보전달의 유용한 표현언어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향문전에 서도 지역문화를 기록영상과 기획영상으로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영상은 상단 메뉴의 시청각 자료실, 동영상 폴더에서 볼 수 있고 기획영상은 콘텐츠 자료실이나 쿼메뉴의 '특별한 이야기'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4.1 기록영상

기록영상은 일정한 지침에 따라 소재와 내용이 구성되는데, 진도의 사업내용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기록영상은 실제 상황이나 자연 현상을 현장에서 사실 그대로 촬영한 영상으로서, 재현이나 극적 요소를 배제하여 제작하였다
-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한 향토문화 유산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전통적인 생활문화나 이를 경험하였던 인물, 전통, 예술, 공예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지역 사회와 문화의 변천상을 담아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기록이 요구되는 자료를 수록하였다.
- 단, 일반 및 개관항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역적 특이성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영상에 포함시켰다.

영상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기록과 청각적인 기록으로 이루어진다. 영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청각적인 정보가 시각 정보 못지않게 화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촬영시 리포터의 설명이나 인터뷰 장면을 넣어주게 되면 촬영대상에 대한 설명이 확보되게 된다. 촬영된 영상은 편집을 거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내용에 대한 이야기구성, 자료화면, 현장음, 내레이션, 배경음, 자막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추가정보가 많이 들어갈수록 정보량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촬영과 편집에 따른 지역별 동영상콘텐츠의 구성항목은 표 2)과 같다.

| 지역 | 구성 | 자료화면 | 현장음 | 리포터 | 내레이션 | 인터뷰 | 배경음 |
|----|----|------|-----|-----|------|-----|-----|
|----|----|------|-----|-----|------|-----|-----|

| | | | | | | | | | |
|----|----------|---|---|---|---|---|---|---|---|
| 성남 | 성남의 명소 | ○ | ○ | ○ | | | | | ○ |
| | 성남의 자랑거리 | ○ | | ○ | | | | | |
| | 살기 좋은 성남 | ○ | | ○ | | | | ○ | |
| | 역동적인 성남 | ○ | | ○ | | | | | |
| | 성남의 경계에서 | ○ | | ○ | | | | | |
| | 성남의 전통 | ○ | | ○ | | | | ○ | |
| | 성남의 어린이 | ○ | | ○ | | | | | |
| | 성남사람들 | ○ | | ○ | | | | ○ | |
| 청주 | 성남의 자연 | ○ | | ○ | | | | | |
| | 성남의 문화제 | ○ | ○ | ○ | | | ○ | ○ | ○ |
| | 자연과 지리 | ○ | ○ | ○ | | | | | |
| | 도시와 마을 | | | ○ | | | | | |
| | 성씨와 인물 | | | ○ | | | | | |
| | 지역사회와 시설 | | ○ | ○ | | | | | |
| 강릉 | 문화예술과 신앙 | | | ○ | | | | | |
| | 생활과 민속 | | ○ | ○ | | | | | |
| | 도시와 마을 | | | ○ | | | | | |
| | 지역사회와 시설 | ○ | | ○ | | | | | ○ |
| 진도 | 문화예술과 신앙 | ○ | ○ | ○ | ○ | ○ | ○ | ○ | ○ |
| | 생활과 민속 | ○ | | ○ | | | | | |
| | 자연과 지리 | | | | | | | | ○ |
| | 도시와 마을 | | | | | | | | ○ |
| | 성씨와 인물 | | | | | | | | ○ |
| 진주 | 지역사회와 시설 | | | | | | | | ○ |
| | 문화예술과 신앙 | | | * | | | | | ○ |
| | 유물유적문화예술 | | ○ | * | | | | | ○ |

표 2 > 지역별 동영상콘텐츠의 구성요소
(* : 행사 영상 제외)

성남과 청주는 현장음을 그대로 살린 경우가 많았으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편집보다는 관찰자적 시각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형태로 편집자의 개입을 최소화시켰다. 성남의 경우, 주부,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시민 제작 작품' 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었다.

강릉의 경우 제작 편수는 많지 않았으나 구성력 있는 편집이나 인터뷰, 내레이션, 리포터의 활용이 촬영 소재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운드 효과에 있어서도 현장음을 최대한 살리고 필요한 경우에 배경음을 넣어주고 있었다.

진도와 진주는 현장음을 완전히 없애고 배경음으로 대체한 경우가 많았는데, 소리와 화면의 이질성으로 인해 현재성과 현실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청각정보가 삭제되어 "기록영상은 실제 상황이나 자연 현상을 현장에서 사실 그대로 촬영한 영상으로서, 재현이나 극적 요소를 배제하여 제작하였다." 라는 지침과 맞지 않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록영상에 제작자 나름의 구성, 리포터의 설명, 내레이션, 자료화면, 배경음, 혹은 자막 등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문전의 동영상콘텐츠가 '기록물' 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기록영상물 제작 방향에 따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제작 트렌드나 경향을 따르기 보다는 원칙

에 따라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지역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기획영상

향문전의 기획영상은, 현장음을 살리면서 특별한 설명없이 화면들을 이어붙인 기록영상과 달리 내레이션의 설명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된다. 즉 치밀한 구성과 대본에 따라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지역별 기획영상 현황을 보면 표3)과 같다.

| 지역 | 내용 |
|----|---|
| 성남 | - 성남 시내버스 기행 - 전통 장터 모란장 - 판교 너더리 마을 |
| 청주 | - 물 한자락에 고요히 깊어지는 마음의 젓줄 무심천 - 살아있는 청주의 특징 있는 건축물 - 수준 높은 교육의 도시 청주 - 우리 전통문화를 만방에 빛낸 세계기록유산 직지 - 우리나라의 가장 긴 돌다리 남석교 - 유서 깊은 청주의 재래시장 - 자랑스런 문화예술의 도시 청주 - 청주의 역사가 숨쉬는 야외박물관, 중앙공원 - 청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박물관과 전시관 - 청주의 영원한 지킴이 상당산성과 것대봉수 |
| 강릉 | - 강릉을 빛낸 문인들 - 강릉지방 누정문화와 경포팔경 - 강릉지방 방언 -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문진 소들 - 송림 속의 마을 초당과 두부 - 재래시장과 어시장 사람들의 생활문화 |
| 진도 | - 세계의 명건 진돗개 - 진도 셋김굿 - 진도 속으로 - 한국판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 |
| 진주 | - 「진주검무」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 별미음식 - 아름다운 충절의 여인 논개 - 유등축제 - 진주 중앙시장 - 진주8경 - 진주소싸움 - 진주오광대 - 진주의 명품, 진주비단 - 진주향토민속관 |

표 3 > 향토문화전자대전의 지역별 기획영상 현황

기획영상의 경우 리포터를 제외하고, 앞서 언급한 촬영과 편집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기획영

상에서는 기록영상에서 전달하지 못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을 다루고 있어 소재 면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제작 형태에 있어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통일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영상기록물이라기보다는 영상제작물에 가깝기 때문에 기록물로서의 의미보다는 감독에 의한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5. 결론

향문전 사업은 다음의 4가지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편찬기반 조성을 위한 선행 연구 작업으로서 기 구축 향토문화자료를 집적하여 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지식 전거(典據)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향토문화지식 자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소재 문화단체, 향토사연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문화 담당자 등 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토문화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지방 문화 전문가들의 이해도와 참여 의지를 높이고 중앙 및 지방의 향토 문화 연구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셋째는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후보지역에 대해 사업을 수행을 위한 기초자원조사 및 정보화 전략연구를 수행하는 기초선행조사이다.

넷째는 시, 군, 구 단위 지역별로 향토문화 콘텐츠의 조사, 발굴 및 연구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내용 체계를 구성한 후 향토문화 지식자원을 총 9개 분야의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을 선정, 발굴하고 연구, 집필하고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 제작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현재 성남, 청주, 진주, 강릉, 진도의 전자대전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남원시, 제주시가 편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종로, 구미, 밀양, 해운대, 부천, 전주, 춘천, 안동, 안산, 양산, 여수, 음성, 논산, 순천, 용인 등이 선행조사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이다.

참여하는 시군이 늘어나는 가운데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은, 내용이나 항목, 인터페이스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남문화대전>의 경우 민족문화를 '성남지역' 또는 '성남'으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항목선정원칙이 중앙적 시각에서 편찬된 민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강병수정경란, 2007). 메뉴 구성과 체계, 레이블의 이름도 사용자 중심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옥선, 2008). 통합 검색의 경우 3.1 운동을 검색

하면 숫자 3과 1이 들어있는 항목도 모두 검색이 되는 등 기술적 검색이 아닌 인문학적 검색 기술이 더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향문전은 사용자가 함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갱신할 수 있는 순환형지식정보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향문전의 사용자는 단순히 현지 주민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토 카즈코가 박물관이 책임감 있게 유물전시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 대상은 전시를 보러 오는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연구자, 워크숍 참여자, 심지어 타박물관에게까지 포함된다고 한 것 처럼, 지식정보를 경영하는 향문전의 경우, 서비스 하는 지식의 항목과 내용의 적정성이 지역거주자나 관광객 외에도 지역사회의 NGO 단체, 연구자, 대학, 기업, 지역 문화행정 담당자, 타향토문화전자대전 관계자 모두에게 공감되어야 할 것이다. 향문전은 '잘 만들어진' 이라기 보다는 '잘 만들어 질 수 있는' 백과사전이다. 향문전을 가장 잘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역민 자신이 될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식정보의 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허홍범, "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4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 [2] 권영옥, 김백희, "향토문화 분류체계와 전자대전 항목 구성체계의 접합방안", 인문콘텐츠 제 9호, 2007.
- [3] 이옥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서비스 시스템 사용성 향상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 [4] 리하르트 반 뢰벤,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1.
- [5] 강진갑, "한국문화유산과 가상현실", 북코리아, 2007.
- [6] 고토 카즈코, "문화정책학", 시유시, 2005.
- [7] 강혜영, "서양백과사전의 역사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1986.
- [8] 오경호, "한국 백과사전 및 사진출판의 통사적 연구", 한국출판학회, 1995.
- [9] 김문영, "우리나라의 현행 백과사전에 관한 평가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
- [10] 홍성흡, '일본 도서지역의 혁신자들(entrepreneurs)의 지역정체성과 발전에 대한 인식-고토(五島)列島 후쿠에(福江)市の 사례-' 1997.
- [11] 한승완,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시론" 사회와 철학 연구회, 세계와 자아정체성, 사회와 철학 1. 이학사, 2001.
- [1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